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 반세기 동안 시민들과 애환 함께 나뉘

(15)제주 최초 철골구조 건축물...제주시민회관

데스크승인 2013.05.05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제주시 이도1동에 들어선 제주시민회관은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인 1964년 6월 신축됐다.

부지 3027㎡(920평), 공연장 1962㎡(600평)의 면적에 지상 3층(강당부 2층)으로 지어졌다. 1963년 7월 첫 삽을 뜬지 약 1년 만에 완공됐다.

일제시대 건축가를 배출한 경성공고 출신인 김태식씨가 설계를 했다. 감독관은 서남식·최영길씨가 맡았다. 이들 3명은 당시 서울특별시 공무원이었다.

제주시민회관은 반세기 전 도내에선 보기 드문 모더니즘 양식이자 공공건축의 혁신을 주도한 건축물이었다.

벽돌을 쌓거나 변변찮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물을 짓던 다른 공공건물과 달리 제주에선 최초로 철골 구조로 지어졌다.

특히 지붕은 철골 트러스로 설치돼 무대와 객석, 공연·경기장(마룻바닥) 등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트러스는 철골 빔과 봉 등 부재를 삼각형 모양으로 서로 조립해 뼈대(골조)를 세우거나 만드는 공법이다.

이에 대해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당시의 건축 예산과 기술을 고려하면 혁신적인 건축기술로 지어진 공공 건축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와 운동 경기, 공연 등 다목적용으로 이용이 가능해 각종 기념식과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으레 시민회관을 떠올릴 정도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애정이 어린 시설로 인식돼 왔다.

당지를 처음 튼 1964년에는 변변한 공연시설이나 행사장이 거의 없던 터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인기 있는 시설로 각광을 받았다.

어린이를 위한 영화 상영과 연극 공연, 경로잔치, 연주회와 세미나까지 매년 9만명이 이용하면서 회관 구석구석에는 시민들의 갖가지 사연이 배어 있다.

넓은 마룻바닥과 함께 505석의 고정 객석과 무대가 갖춰져 문화예술 및 체육, 휴식공간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선거일에는 개표장으로 빠짐없이 이용돼 왔었다. 한 때 건물 일부는 이도1동사무소가 들어섰으며, 임대 상가들도 입주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제주문예회관, 제주학생문화원 등 전문성을 띤 새로운 문화시설이 등장하면서 시민회관의 위상은 과거보다 크게 위축됐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건물이 낡고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2007년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제주시는 2011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벌였고, 올해는 배수관과 창호 주변 누수에 따른 보강 공사를 벌인 결과 안전성이 양호한 B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제주시는 5년 전부터 시설 노후화에 대비, 제주시 오라동에 건립된 제주아트센터에 시민회관의 역할을 넘겨주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아트센터는 무대 공연장으로 신축되면서 배드민턴·탁구·태권도 등 체육행사와 각종 집회를 예전 시민회관처럼 열 수 없게 됐다.

아트센터에는 뛰거나 놀 수 있는 넓은 마룻바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회관을 지금도 보존해 가면서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회관은 수 년 전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며 철거 기로에 놓였었다. 2004년 건물을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온 이래 2009년 도심 공원으로 설치하려던 계획은 도의회 예결위까지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회관은 현재까지 증축되거나 개조하지 않고 원형의 모습으로 건재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해 온 애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시민회관 이용 현황을 보면 공공 및 일반행사, 생활체육 대회 등 374회에 4만8080명이 다녀갔다.

김이택 제주시 청사관리담당은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가운데 시민회관까지 철거됐다면 이 일대 상권도 몰락했을 것"이라며 "도심 공원 활용 방안도 유력하게 제시됐지만 자칫 우범지대로 전략

할 우려가 있어 회관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이 됐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사진=시민회관 전경) 1964년 지어진 후 지금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제주시민회관 전경

(사진=철골 트러스) 시민회관은 도내 최초로 철골 구조로 건축됐다. 지붕을 철골 트러스 공법으로 받친 모습.

(사진=운동 경기) 시민회관 공연장은 실내 면적이 600평에 이르고 넓은 마룻바닥이 설치돼 있어 배드민턴 등 각종 운동 경기가 가능하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